

10.1.2015

Alfred Adl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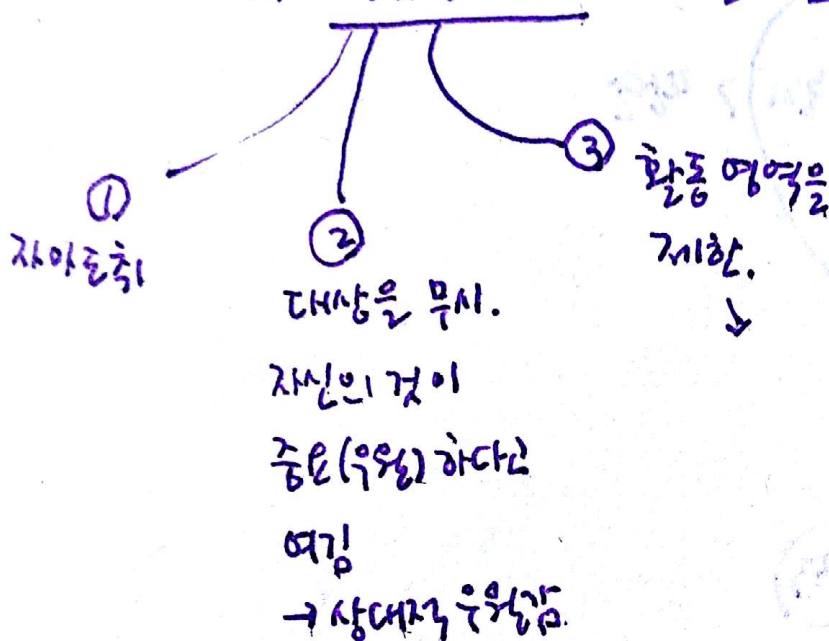
feelings of inferiority

억압감

← 그 자식은 나쁜 것이 아니다.

(좀 더 나아지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킴.

다만, 잘못된 방향으로 이를 제거하려는 것이 문제.



상관심을 개선하려는 노력없이

~~~~~  
스스로를 속임.

• 협력하는 힘을 배우라 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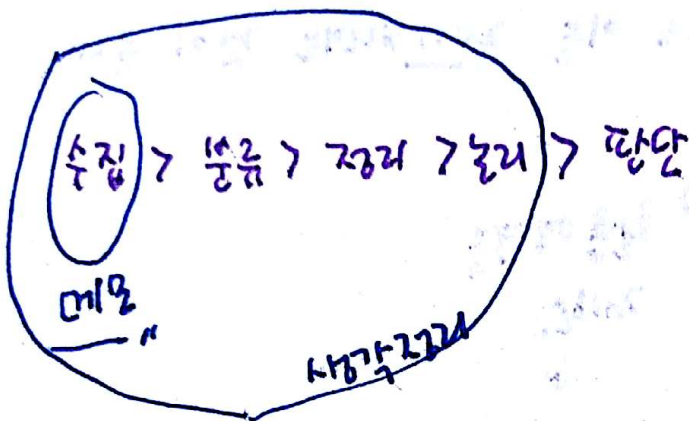
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개개인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.

10.1.2015

메모

기분

- 사색각색을 때 정리
- 항상 가능한 것
- 지름길 많아 고민 많기
- 기억력 못 믿지 않기



이런 <sup>너</sup> (3.23)

하루는 ← 시간을 정해놓아야

사색각 정리

내가 사색각하는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한다

신뢰할 수 있는 불안감 없이 여유(시간) 있게

살아가볼 수 있다.



박노자의 ~~한겨레~~ 한겨레, 마나 댁 (한겨레신문에서)

↑ ⇒ 진정한 다문화  
비행인민, 못사는 나라

이날의 행거를  
대부분 공유.

사람인지 시대  
권악관공론을 계승

한국의 에너지 ↑

## 조선국 태조의

"1830" 집착

2. 비결정 대표이란

## 일본의 정국

月先入歐

이날대항의 영문승계차장사

$$125\% \cdot \frac{1}{2} = 62.5\%$$

사슴의 수컷의 4%

중간과 시험

(국적은 외국인)

모양이  $\frac{1}{2}$ 이다

## 한국의 대외관

문화·세계관적 원인.

수정 및 미정족의, 항상 만능족의

사건자본의 수익 (평균자산수익이 0.47%)

→ '미끼'가 자각 능력이 아닌 인지능력 (배경지식)

Copyright©2010 봉하재단 All rights reserved.



2/16/2015

가톨릭 인터뷰 기사 (2009)

가톨릭  
18만여명  
---  
죽어!

사소한 (새로운) 일들의

연속

타리메

당시느 문제들

다른 어떤것도 (해결, 친구, 돈...)

대신 해결해 주지 못함

타리난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남.

2/16/2015

불확실성이란

공포에 대처하는

자세



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이기

개입적으로

살아남음으로써 해명

공포를 잘게 잘개

나누어

연대

공적부조

이런의 문제가 아니라

'기성'의 문제다.

진실이 잘먹고 잘살아야

← 다음 세대들의 ROLE MODEL이  
되어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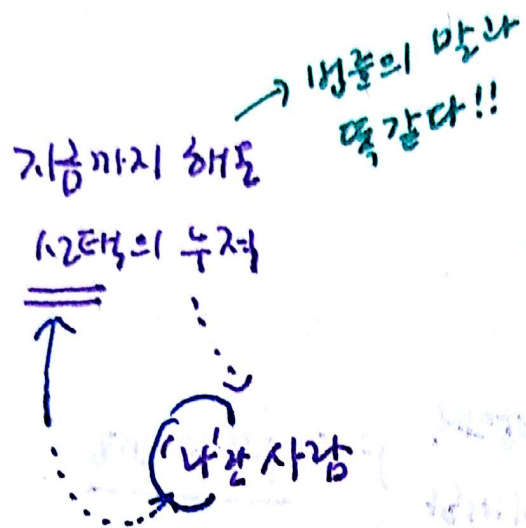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진부 → 종교집단이

신앙하는 자들

→ 권위에 기대.



2/16/2015



선택의 주도권을  
상대방에게 줄 것임  
책임은 회피

사회적응 행동의 남성성의 행이

성경화 ... 남성성 ... 723

↓

이 권력이 행사될 때

남성성의 비대칭은 어디?

교화하게 감을 볼다. ... 723당.

2/16/2015

김기철 인터뷰 (2009)

북경방의식 ) 일종의 자살행위  
자기비하

왜소한 자살감

이 지점이 자극되면

“민족주의”적 관점과 상반없이  
다독여주고 싶은 마음.

민족주의자가 비난받아.

